

추석 앞두고 요동치는 대선 여론 단일후보 文·安, 수도권서 차 크게 앞서

3자 대결선 박근혜, 단일화 땀 문재인·안철수

단일후보 文 우세...새누리 지지자 “安 보다 文”

12월 대선 초반전의 여론을 좌우할 추석 연휴를 앞두고 3명의 유력 후보 간 지지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역사 인식 논란과 측근 비리의혹 등 약재가 겹치며 하락세를 면치 못한 반면 지난 16일 후보로 확정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지난 19일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자구도는 ‘박-안-문’ 순=23일 현재까지는 ‘박 1강(強), 문·안 2중(中) 또는 ‘박-안 2강, 문 1중’으로 지지율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박 후보의 경우 보수층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안·문 후보의 지지층은 상당 부분 겹치면서 박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리서

치엔리서처에 의뢰해 지난 18~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3자 대결에서 박 후보는 39.9%로 1위를 고수했고 안 후보 28.8%, 문 후보 19.6%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추격을 하면서 2강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 35.9%, 안 후보 32.6%, 문 후보 19.7%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갤럽의 지난 10~15일 조사에서는 박 후보 42%, 안 후보 20%, 문 후보 18%였으나 17~21일 조사에서는 박 후보는 39%로 하락한 반면 안·문 후보는 각각 28%, 22%로 상승했다.

▷예측불허 수도권=특정 정당에 대한 솔직한 지지가 없는 수도권은 호재 약재에 따라 여론이 요동친다. 박 후보는 약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빠

졌지만 안·문 후보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리얼미터의 박 후보와 안 후보의 19~20일 양자대결 결과, 서울에서는 박 후보 41.9%, 안 후보 50.3%, 경기·인천에서는 박 후보 38.9%, 안 후보 55.7%로 각각 집계됐다. 문 후보의 맞대결에서도 박 후보는 서울, 경기·인천에서 모두 뒤졌다. 한국갤럽의 17~19일 조사 결과도 서울에서 박 후보 38%, 안 후보 53%, 인천·경기에서 박 후보 45%, 안 후보 47%로 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문·안 단일화 성사시 표심 이동=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따라서 3파전에서의 문 후보 또는 안 후보의 지지층이 단일화 성사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리얼미터의 19~20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자대결에서 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응답자의 77.6%가 ‘박근혜 대 안철수’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다자대결에서 확인된 안 후보

지지층의 74.1%가 ‘박근혜 대 문재인’ 양자대결에서 문 후보를 선택했다. 이는 누구로 단일화하든 문·안 후보 지지층의 상당규모가 단일 후보에 표를 던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안 후보가 문 후보보다는 표의 확장성이 좀더 크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역선택은=다자간 대결에서는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상당폭 앞서고 있지만 야권 단일후보 지지 조사(한국갤럽 17~21일)에서는 문 후보 47%, 안 후보 38%로 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 지지층이 문 후보를 지지한 때문으로 역선택 결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문 후보 50%, 안 후보 44%였으나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는 문 후보 56%, 안 후보 2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또 박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안 후보에 대한 반감이 53%, 문 후보에 대한 반감이 20%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후보 중심으로” 민주통합 광주지역 국회의원회와 시의원 등이 23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제3기 민주정부 수립을 다짐하며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seans@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 ‘文단속’ 비상

일부 안철수 지지 움직임에 ‘경선 후유증’ 수습 안간힘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당원들의 분열과 반목을 막고, 최근 일부 당원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집안 단속’에 나섰다. 특히 광주시당은 향후 안철수-문재인 간 단일화를 앞두고 추세 전 민심형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경선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장병만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박재자(서구 갑)·임내현(북구 을) 의원은 23일 광주시의원들과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당원들은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 제3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조금의 불편함과 아픈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와 포용으로 하나 되는 광주시당이 될 것”이라며 “당원들의 단합된 의지와 각자의 정권교체의 선봉이 된다”며 당원들의 단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와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민주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치열했던 만큼 각 의원·당원들이 지지했던 후보에 대한 아쉬움이 커 당원들 간 반발과 분열 기미가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날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대선 경선 후유증’으로 인한 당원들 간 반발이 곳곳에서 감지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당원 중 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 지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일부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당원들 사이에 당내 반발시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날 기자회견은 지역 국회의원들부터 대선 경선 지지 후보를 떠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는 점을 그동안 경선 현장에서 뛰었던 당원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상징적’

의미로 보인다. 특히 시당위원장인 장병만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향후 장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화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기정(북구 갑), 김동철(광산 갑), 이용섭(광산 을) 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으며, 성명서 발표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대선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으며, 김동철 의원은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다. 이 의원은 중립의사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돌아온 ‘박근혜의 입’

이정현 공보단장 임명... 대선 역할 주목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복심’으로 통해온 이정현 당 최고위원이 23일 공보단장에 임명되면서 12월 대선가도에서의 역할이 주목된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보업무를 총괄하는 공보단장을 한 달도 못돼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은 대(對) 언론기능을 보강하고 국민과

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당 안팎에선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이른바 ‘안철수 불출마 중용 협박’ 논란에 이어 박 후보의 과거 사인식 논란 등 각종 대형 이슈에도 공보단이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는 1차 승부처로 인식되는 ‘추석 민심’을 겨냥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공보를 통해 불복 이미지를 씻고 지금의 수세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가 그간 인위화돼 있던 당대변인을 공보단으로 일원화시킨 것도 그런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 공보단장은 임명 직후, 광주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복심’으로 통해온 이정현 최고위원이 23일 공보단장에 임명되면서 12월 대선가도에서 역할이 주목된다. 박 후보가 지난 2011년 10월 광주에서 열린 이정현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야기하는 모습. /연협뉴스

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긴장된다”며 “박 후보와 언론인의 가교 역할을 최대한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당과 공보단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 운영, 당 정책, 현안 등을 놓고 당과 공보단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후보의 진심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민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혁당 브리핑’ 혼신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홍일표 당 공보대변인 후임에는 재선의 김재현 의원이 발탁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결론은 ‘쓰리고에 피박’?!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 원서접수 : 11. 12(월) ~ 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 원서접수 : 11. 12(월) ~ 30(금)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롯데제이티비 1577-6511

이달의 우수대리점 광주롯데백화점 062) 223-5588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062) 228-6644

LOTTE CARD로 해외여행가고 최대 10%~7% 할인 받자!

일본 10/3 북해도 도동일주 499,000원부터

유럽 롯데호텔소풍 인기상품 1,990,000원부터

미주/대양주 California Dream 미서부 완전일주 8/9일 1,490,000원부터

동남아 롯데호텔소풍 9월 14일 방승여행 상품 649,000원부터

중국 게임 앙상 용승 399,000원부터

스페셜/크루즈 9일간의 프랑스 359만원부터

○ 광주전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무등점, 문화전당점, 서광점, 매월점, 광산점, 농성점 ○ 전남전 :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